

임순득(任淳得)과 서정주(徐廷柱)의 관계 연구

-임순득의 소설 「달밤의 대화(月夜の語り)」와
서정주의 시 「엽서-동리에게」를 중심으로

이상경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목차

- 1 머리말
- 2 임순득과 서정주의 만남
- 3 서정주의 짝사랑
 - 3.1 사는 언덕이 다른 잘난 여자
 - 3.2 보들레르처럼 쉽고 괴로운 서울 여자
- 4 임순득의 연민
 - 4.1 달밤에도 새끼를 꼬아야 하는 시인
 - 4.2 임순득의 보들레르
- 5 맺음말

일제 말 임순득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소설 「달밤의 대화(月夜の語り)」에는 서정주의 시 「엽서-동리에게」에 나오는 “포올 베르레에느의 달밤이라도/ 북동이와 같이 나는 새끼를 꼬마”라고 하는 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이를 단서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같은 전북 고창 출신 소설가인 임순득과 시인인 서정주의 인간적, 문학적 관계를 밝혔다. 서정주는 1936년 초 최첨단 모던 여성이었던 임순득에게 사랑을 호소했으나 임순득에게 거절당하고 수더분한 고향 여인과 결혼한다. 임순득에게 서정주는 어설픈 모더니스트처럼 보였고 또 임순득이 지고 있는 시대적 고민을 나눌 만한 상대도 아니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임순득은 서정주에게 보들레르처럼 쉽고 괴로운 여자였고 임순득에게 서정주는 베르레느의 달밤에도 생활을 위해 새끼를 꼬아야 하는 가난한 시인이었다. 이 과정은 서정주의 초기 시 세계가 서양적인 보들레르를 떠나 동양적인 전통 세계를 발견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서정주는 일자리를 찾아 만주국에 갔다온 뒤 1942년 친일문학에의 길로 들어선다. 임순득은 거기서 생활인으로서의 서정주를 보았고 소설 「달밤의 대화」에서 서정주의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그 ‘생활의 표정’에 연민을 표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개인사로서도 흥미롭지만 그 상호텍스트성으로 해서 두 사람의 작품 해석을 풍부하게 해주며, 보들레르에서 잠시 만났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동양’으로의 귀환을 거쳐 친일 시인으로, 또 한 사람은 식민지 여성 지식인으로서 사명감을 견지하면서 시국색을 띠지 않는 서정적 작품을 쓰는 소설가로 서로 멀어지는 일제 말기 문학사의 흥미로운 한 장면을 빚어냈다.

국문핵심어: 임순득, 서정주, 보들레르, 「달밤의 대화(月夜の語り)」, 「엽서-동리에게」

“샤를르 보들레르처럼 쉽고 괴로운 서울 여자를/ 아주 아주 인제는 잊어버려”(서정주, 「수대동 시」, 『시건설』 1938.6.)

“포올 베르레에느의 달밤이라도 북동이와 같이 나는 새끼를 꼬마.’ 이런 시를 읊은 시인의 얼굴도 생각나서 순희는 가슴이 저려 왔다.” (임순

득, 「달밤의 대화(月夜の語り)」, 『春秋』 1943.2.)

1 머리말

일제 말 임순득(1915~?)¹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소설 「달밤의 대화(月夜の語り)」(일본어, 『춘추』 1943.2)에는 서정주의 시 「엽서-동리에게 주는 시」(『비판』 1938.8)에 나오는 “포올 베를레에느의 달밤이라도/ 복동이와 같이 나는 새끼를 낳다.”라고 하는 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임순득의 소설에 왜 서정주의 이 시 구절이 나오는가 하는 의문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작가가 자기 작품 속에 다른 작가의 문장을 아무 이유 없이 인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문은 나아가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임순득은 왜 이 구절을 인용했는가, 임순득과 서정주는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임순득이나 서정주에 관한 연구에서 이 대목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없다.

서정주 평전을 쓰면서 이경철은 『화사집』 수록 시를 쓸 당시의 서정주가 짝사랑하고 있던 여성이 같은 고창 출신의 작가 임순득임을 서정주의 동생 서정태 시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서정주와 김동리의 관련 회고를 참고해, 임순득은 “서정주의 혼을 온통 빼앗은 신여성”이었고 또 서정주의 가슴 속에 박힌 “생채기”라고 정리했다.² 그런데 이경철은 사실 자체만을 지적했을 뿐,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양상이라든지 그것이 서정주의 시나 임순득의 소설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밝히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서승희는 「달밤의 대화」에 대해 논하면서 임순득의 소설에 서정주의 시구가 인용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임순득이 서정주의 이 시구에 영향을 받아 「달밤의 대화」를 구상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³ 그러나 서승희는 1930년대 중후반 임순득과 서정주의 개인적인 관계를 알지 못했기에 그 인용의 의미를 해석하지는 못했다. 윤재웅은 서정주의 산문을 통해서

-
- 1 임순득에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 2009에 의한 것이다.
 - 2 이경철, 『미당 서정주 평전: 더 없이 아름다운 꽃이 질 때는』, 은행나무, 2015, 91-114쪽.
 - 3 서승희, 「식민지 여성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 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72집, 2016.4, 272-273쪽.

정주 시의 창작 동기를 밝히면서 「문동이」가 임순득에 대한 실연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⁴

이런 상황에서 전북 고창 출신 소설가인 임순득과 시인인 서정주의 개인적인 관계와 그 관계에서 비롯된 문학적 영향 관계를 추적하고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시절 서정주에게 임순득은 “샤를르 보들레르처럼 쉽고 괴로운 서울 여자”였고, 임순득에게 서정주는 “포올 베를레에느의 달밤이라도 (...) 새끼를 꼬”아야 하는 가난한 시골 총각이었다. 고창 출신으로 고창 부자 김성수 집안의 마름의 아들이었던 서정주는 1935년 말부터 1936년까지 당시 최첨단 모던 여성이었던 임순득을 짝사랑했는데 짝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의에 빠져 있다가 아버지가 정해진 수더분한 고향 여인과 결혼한다. 이 과정은 서정주의 시세계가 초기 보들레르와 서양적인 것을 떠나 동양적인 것과 전통 세계의 발견으로 전환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임순득의 입장에서는 짝사랑을 호소하던 시기의 서정주는 겨우 시 한 편을 발표하고서 유행처럼 보들레르니 베를렌느니 랭보를 운위하는 어설픈 모더니스트처럼 보였고 또 임순득이 지고 있는 시대적 고민을 나눌 만한 상대도 아니었기에 서정주의 짝사랑을 거절했다. 그러다가 서정주가 고향 처녀와 결혼한 뒤 생활을 위해 만주국에 가서 서기 노릇을 하고 돌아와서는 1942년 전후로 친일문학에의 길로 들어서는 것에서 ‘생활의 표정’을 보았고 소설 「달밤의 대화」에서 서정주의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그 ‘생활의 표정’에 연민을 표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개인사로서도 흥미롭지만 그 상호텍스트성으로 해서 두 사람의 작품 해석을 풍부하게 해준다. 또한 일제 말기 문학사의 흥미로운 한

4 윤재웅은 “서정주와 임순득의 사랑에 대해서는 서정주의 기록밖에 참고할 게 없어서 서정주의 진술이 상호 오류가 나면 판정하기 쉽지 않다. 두 사람은 집안끼리도 아는 사이며 젊은 시절엔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도 비슷했다. 서정주가 사회주의에 회의를 느껴 결별하고 난 뒤 두 사람은 이념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다.”라고 서정주의 감정이 짝사랑으로 끝난 이유로 ‘이념의 차이’를 들었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잘 맞지 않는다. 윤재웅, 「서정주 『화사집』에 나타난 체험과 창작의 상관관계-중앙불전 재학 및 해인사 체류 시절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95호, 2021.6, 283쪽.

장면을 구성한다. 두 사람은 보들레르에서 잠깐 만났다가 서정주는 ‘동양’으로의 귀환을 거쳐 친일 시인으로, 임순득은 식민지 여성 지식인으로서 사명감을 견지하면서 시국색을 띄지 않는 서정적 작품을 쓰는 소설가로 서로 멀어지는 것이다.

2 임순득과 서정주의 만남

임순득과 서정주의 인연은 여러 겹이다. 두 사람은 함께 전라북도 고창 출신이고 1915년생으로 나이가 같으며 1929년에 임순득은 이화여고보로, 서정주는 중앙고보로 서울 유학을 간 시기도 같다. 임순득의 오빠 임택재(1912~1939)와 서정주는 고창고보와 중앙고보 동창이다. 임택재는 1924년 4월에 고창고보에 입학했다가 1년 정도 서울의 중앙고보를 다니고 고창고보에 재입학하여 1929년 3월에 졸업한 뒤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서정주는 1929년 중앙고보에 입학했다가 퇴학당하고 1931년 고창고보에 편입했다. 이때 서정주의 아버지가 고창고보에 들어간 서정주를 뒷바라지 하겠다고 사서 이사 간 집이 고창 월곡리의 임순득이 살던 집이니⁵ 임순득의 아버지는 월곡리 집을 서정주 아버지에게 팔고 전주로 이사를 간 것이다. 임택재와 서정주가 같이 학교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좁은 바닥에서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정주가 임순득을 만나서 짝사랑을 호소하고 체념하게 되는 것은 1936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에 대해 서정주는 여러 차례 회고를 남겼고, 이때 서정주와 기거를 같이 했던 김동리도 서정주의 첫사랑에 대해 자세한 회고를 남겼다. 서정주는 산문과 시로, 김동리는 산문으로 임순득에 대해 회고하거나 언급했고, 고희가 된 두 사람의 대화에서도 임순득을 언급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서정주, (산문) 「나의 방랑기」, 『인문평론』 1940.3~4.

서정주, (산문) 「해인사」, 『미당 서정주 전집 7: 문학적 자서전 천지유정』, 은행나무, 2016. 이 글은 원래 『월간문학』 1968.11-1971.5에

5 구체적인 주소는 전북 고창군 고창면 월곡리 276번지이다. 임순득의 본적지이기도 하다.

연재된 『천지유정』 중의 한 편이다.

서정주, (시) 「충양」, 『미당 서정주 전집 3: 시』, 은행나무, 2015, 266-267쪽. 이 시는 원래 『현대문학』 1982.3.에 발표한 뒤 서정주 제10시집 『안 잊히는 일들』(1982)에 실은 것이다.

서정주, (시) 「해인사에서」, 『미당 서정주 전집 4: 시』, 은행나무, 2015.

서정주, (시) 「구식의 결혼」, 『미당 서정주 전집 4: 시』, 은행나무, 2015.

김동리, (산문) 「미당과의 만남」, 김동리기념사업회, 『탄생 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㉞ 수필로 엮은 자서전』, 도서출판 계간문예, 2013.

김동리, (산문) 「서정주의 첫사랑」, 김동리 기념사업회, 『탄생 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㉟ 수필 운명과 사귄다』, 도서출판 계간문예, 2013.

김동리·서정주, (대담) 「고희의 문단 두 원로 신춘 정담-문학과 더불어 '우정 반세기」(상), 『한국일보』 1984. 01.05.

이렇게 서정주와 김동리의 회고가 여러 차례 되풀이되면서도 내용상 특별히 상충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회고한 서정주와 임순득의 관계는 거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회고를 종합하면 1936년 1월 3일 『동아일보』에 서정주의 시 「벽」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발표된 뒤⁶ 이 시를 읽은 임순득의 오빠 임택재가 고창면 월곡리 죽방 집으로 서정주를 찾아오면서 관계가 시작되었다. 임택재는 그 이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1935년 12월 20일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때였고 시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다.⁷ 서정주의 고창 집은 그 전에 임순득 가족이 살던 집이었다. 그 이전부

6 서정주의 시 「벽」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은 1935년 12월 28일 『동아일보』에 나왔고 작품 자체는 1936년 1월 3일 실렸다. 『동아일보』 1936년 1월 4일에는 「신춘문예 당선자 소개」라는 난에 서정주의 사진과 함께 “전북 고창 출생. 금년 22세, 중앙, 고창고보 중도 퇴학, 현재 불경 공부 중, 중앙불전 생도.”라고 하는 약력이 기재되어 있다.

7 임택재는 1936년 11월에 발행된 『낭만』 창간호에 ‘임사명(任史冥)’이라는 이름으로 「고

터 서로에 대해 알고 있었을 임택재와 서정주는 만나서 서로 이야기가 잘 되었던 듯, 임택재는 서정주를 전주의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전주에서 서정주는 임순득을 처음 만났다. 서정주의 눈에 비친 임순득의 인상은 “약간 등이 굽은 듯한, 모가지가 가느다란, 눈에는 역시 보리밭에 낀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이 속에 들어있는 여자”⁸였다. 이후 여러 글을 통해 이 인상은 훨씬 자세해진다. 전주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문학 이야기를 나눈 뒤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서정주는 몇 번씩이나 임순득의 집을 찾아가 구애를 했다. 임순득이 보들레르를 읽고 싶다고 하자 전당포에 물건을 잡히고 빌린 돈으로 보들레르 시집을 구해다 주고 친구 김동리나 동생 서정태에게 연애편지를 들려 보내고 자기가 쓴 시를 정서해서 보내는 등 온갖 정성을 기울여 구애를 했다. 그러나 임순득은 이미 다른 남자가 있다면서 거절했고 서정주는 절망에 빠져 방황하다가 1936년 5월에 해인사로 가는 것으로 짝사랑은 끝나고 말았다.

1936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서정주에게 이 사건의 영향은 너무 강력하여 이후 서정주 인생의 여성, 시 속의 여성 모델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면 언제나 임순득의 모습이 등장했다. 서정주 초기 시와 산문에서 순네, 순아, 임유라(任幽羅), 유나(與娜), 수나(叟娜) 등으로 불리는 여성에는 많은 적든 임순득의 이미지가 들어 있다. 반면 임순득의 경우에는 이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 발표한 소설 속에 서정주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다.

3 서정주의 짝사랑

3.1 사는 언덕이 다른 잘난 여자

향], 「어두운 방의 시편들」, 「독백」 3편의 시를 실었다. 이 잡지에는 박세영(2편), 이찬(2편), 임화(1편), 오장환(1편), 이용악(1편) 등이 시를 실었다. 『낭만』의 발행인인 민태규도 2편만 실은 데 비해 3편을 실은 시인은 임택재가 유일한데 그 시들도 모두 상당히 길다. 이후 임택재는 「말」(『비판』1938.3)을 발표했고 그가 병으로 죽은 후에 유고시로 「십년 또 십년」이 『시학』 제2호(1939.5)에 발표되었다. 임택재와 관련된 사항은 이상경, 앞의 책, 477-515쪽 참고.

8 서정주, 「(속) 나의 방랑기」, 『인문평론』 1940.4.

서정주가 만난 임순득은 ‘사는 언덕이 다른’ 사람, 즉 사회적으로 처한 환경이 다른 사람이었다. 임순득을 처음 만나기 전, 서정주는 다니던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시계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되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다. 그럴 때 부잣집 딸이고 일본 유학생인 임순득을 만났으니 임순득에게서 느낀 계층의 차이 같은 것이 서정주의 감정과 절망을 더 격렬하게 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다.

1935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나는 확실히 절망한 그리스도였다. 관수교 다릿목 같은 데 우두커니 서서는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원통하다! 원통하다!

교모는 비록 쓰지 않았으나, 아직도 단추가 두 갠가 달린 그 사립종교학교⁹의 쓰메에리 교복을 숙명처럼 입고 다니며, 나는 서울 장안의 자전거 방울이란 자전거 방울을 모조리 따 먹어 버리고 싶은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칼모틴¹⁰과 한 자루의 단도를 번갈아서 사 가지고 다니기는 하였으나, 나는 그걸로써 자살하지는 못하였다. 연전(年前)에 죽은 이전(梨專) 학생¹¹보다는 나는 아무래도 ‘사내’였던 것이다.

유라(幽羅)! 임유라(任幽羅)! 너는 왜 하필 이런 때를 가리어서 내 앞에 나타났느냐. 불 꺼진 너의 창문 앞에 전신주를 기대어 섰던 그 많은 밤을, 나는 사실인즉 불치의 천형 병자였다. 능구렁이었다. 익사하려는 슬픔이었다.

(…)

9 중앙불교전문학교를 가리킨다.

10 칼모틴(Calmotin): 냄새가 없는 흰색의 결정성 가루. 불면증·신경 쇠약·구토·천식 따위를 치료하는 데 쓰인다.

11 1937년 1월 19일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 2학년의 고학생 문창숙이 자신이 회계를 맡고 있던 기숙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살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봉관, 『경성자살클럽』, 살림, 2008, 146-171쪽 참고). 가난한 탓에 도둑의 누명을 썼다는 점에서 서정주는 문창숙에 자기를 비교하였다.

하룻밤을 청수정¹² 그들의 집에서 묵고 있는 동안, 나는 그들의 과도한 친절과 유나의 미모와 소프라노에 가까울 만큼 울리는 음성 속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앉아만 있었다.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아무래도 그들은 나와는 사는 언덕이 다른 것만 같았다. 자지러지게 푸른 달이 뜨는 보리밭 속에서 울리어 나오는 피리 소리-그런 것을 생각하며 나는 어찌 울고 싶었다.¹³

서정주는 시골 출신이 서울에 와서 친구들에게 도둑으로 몰렸던 상처를 가진 처지에서 ‘지성과 미모를 갖춘 부잣집 딸’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때 임순득은 이화여고보와 동덕여고보에서 퇴학을 당한 뒤 일본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 있는 상태였다.¹⁴ 임순득의 오빠도 한 사람은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했고 다른 한 사람, 임택재는 고창고보 졸업 후 일본 야마구치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경성제국대학 입학할 준비한다는 핑계로 서울에 있으면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관련되어 옥고를 치르고 나와 있는 상태였다. 요컨대 부잣집 아들과 딸로서 각종 사회운동에 투신하여 고난을 겪은 뒤 이제는 문학공부를 하고 있는 임택재와 임순득은 서정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는 언덕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전주에서의 첫 만남 이후 서정주는 서울에서 임순득을 쫓아다니며 사랑을 호소했으나 서정주가 생각하기에 임순득은 장안에서 ‘잘난 남자’들과 사귀면서 서정주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 남자들보다 더 잘난 여자인

12 전라도 전주읍 청수정 46번지. (1934년 5월 5일 작성된 임택재의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에 따름).

13 서정주, 「(숙) 나의 방랑기」, 『인문평론』 1940.4.

14 임순득의 일본 유학에 관해서는 1933년 7월 동덕여고보에서 퇴학당한 뒤 9월에 일본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전주경찰서의 사찰 보고가 있다. 실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연보를 살펴보면 1933년 7월부터 1935년 말까지의 행적이 비어 있는데 이때 일본 유학을 했을 수도 있다. 김문집의 비평을 빌려서 ‘여고사’를 다녔을 것으로 짐작해 왔는데(서정자, 「최초의 여성문학평론가 임순득론 - 특히 그의 페미니즘 문학 비평을 중심으로」, 『청파문학』 제16집, 1996.2.) 김동리의 회고에서는 메지로의 일본여자대학을 다녔다고 말하고 있다. 김동리의 회고가 구체적 사실을 상당히 정확히 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일본여자대학에 유학했을 가능성이 높다.

임순득 앞에서 서정주는 스스로 ‘못난이’라고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여자는 나처럼 문학소녀였고, 일본 유학의 대학생이었고, 또 전라도의 한 고향 사람이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같은 점을 떠나서 나와 다른 것은 언제나 선택한 여성 앞에 내가 못난이였던 데 비해 이 여자는 모든 남자 앞에 두루 잘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일인 것 같다.

이 여자는 자기만이 그럴 뿐 아니라 남자도 또 어디서나 잘나야 하는 남자만을 골라 데불고 다녔다.

당시 유행의 유물론에, 사회주의에, 세스토프에, 언제 어디서나 똑똑하게 잘난 아주 말쑥한 새 양복을 입은 무슨 연극 지도자라는 사람하고 같이 단둘이만 짐을 꾸리고 있는가 하면, 훗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이때의 희귀한 택시 속에 어떤 신문 사회부 톱 기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엔 명동 일류의 다방 주인 사내하고 나란히 소공동 모퉁이를 돌아서고 있기도 했다.

(…)

나는 기름때가 번지르한 껌정 세루의 학생 정복에 발뒤꿈치를 기운 양말을 신고 이 여자의 하숙을 찾아가서는 우두머니 장승처럼 서서 이 여신을 질투하고 사랑했지만, 말은 영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몇 줄의 연애편지라는 걸 써 놓았는데, 그건 ‘나는 당신의 웃고름 하나에도 감당하지 못할 버려지 같은 겁니다’ 어찌고 한 그런 것이었던 듯하다. 김동리가 마지 못해 이걸 갖다가 전하긴 한 모양인데 물론 한마디의 대답도 오지 않았다.

(…)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문둥이」

그때 쓴 이 작품에서도 보이는 것같이 지독한 문둥이와 같은 격리감 속에 그 질투와 사랑의 말은 숙제를 풀지 못해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는

내가 쓴 시들을 정서해서 그 여자한테 보냈다.¹⁵

임순득과의 관계에서 서정주는 자신을 ‘못난이’, ‘불치의 천형병자’로 느꼈고 그 심리는 시 「문둥이」로 표현되었다. 서정주가 느낀 ‘다름’은 경제적 격차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생활 양식, 문화의 문제였다. ‘발뒤꿈치를 기운 양말’, ‘꼬린내 나는 양말’을 신었기에 거절당했다고 여러 차례 썼는데 이것은 가난이라기보다는 촌스러움, 세련되지 못함의 표징이었다. 서정주 자신 투박하고 촌스러운 외양이지만 실은 보들레르까지 이해하는 시인으로 섬세한 감수성과 지성을 가졌는데 첨단을 걷는 세련된 도시처녀는 그것을 알아봐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정주가 임순득에 대해 짝사랑을 하고 있던 시기, 서정주는 김동리와 거의 숙식을 같이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김동리에게 알리고 같이 임순득을 찾아가고, 자기가 쓴 연애편지를 임순득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서정주의 ‘첫사랑’을 곁에서 같이 겪은 김동리는 뒤에 이 사건에 대해 서정주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한 회고를 남겼다.

정주는 꽤 오랫동안 감정을 청산하지 못하는 듯했다. 술이 얼근할 때마다 어디서 돌팔매가 날아와 자기의 머리를 땅 때릴 것 같다는 등, 어쩌면 문둥이가 될 것 같다는 등, 온몸이 이지러지는 것 같다는 등, 하고 나에게 고통을 호소하곤 했다.(이건 물론 그녀와 관계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르지만…….)

(…)

정주와 나는 헤어졌고 헤어진 지 몇 해 만에 정주의 처녀시집 『화사(花蛇)』가 나왔다. 그 시집 속에 수록되어 있는 「엽서(葉書)」¹⁶란 시를 읽고

15 서정주, 「해인사」, 『미당 서정주 전집 7: 문학적 자서전』, 은행나무, 2016, 40-41쪽. 이 글은 원래 『월간문학』 1968.11-1971.5에 연재된 『천지유정』 중의 한 편이다. 1936년 중반 서정주는 임순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울을 떠나 해인사로 도피했다.

16 서정주, 「엽서-동리에게」, 『비판』 1938.08. 이 시의 한 구절을 임순득이 소설 「달밤의 대화」(『춘추』, 1943.2)에서 인용했다.

나는 그때야 정주의 감정이 청산된 것을 알았다.¹⁷

회고에서 김동리는 비록 복자를 넣었지만 ‘임○득, 임택○’이라고 하여 임순득과 임택재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임순득이 소설 속에서 일부 인용한 서정주의 시 「엽서(葉書)」가 임순득과 관계있는 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다. 그밖에 임순득이 살던 방의 풍경이라든지, 임순득의 외모, 목소리, 태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¹⁸

이후로도 서정주는 여러 차례 시에서 임순득과의 일을 썼다.

내가 풀려나기 비롯한 것은
내 빵꾸난 양말의 발꼬린내에
그네가 드디어 못 견디어서
양말 안 빵꾸 나는 사내에게로
살짝 그 몸을 돌려 버린 그때부터다.¹⁹

사실은 전에 가을에 어느 여대생에게
‘나는 당신의 웃고름 하나에도 당하지 못할 미물만 같습니다’하는
내 일생에서 처음이고 또 마지막인 연정의 편지 몇 줄을 써 보냈는데

17 김동리, 「서정주의 첫사랑」, 김동리 기념사업회, 『탄생 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30: 수필 운명과 사관다』, 도서출판 계간문예, 2013.12.; 유사한 내용이 김동리, 「미당과의 만남」, 『탄생 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㉞ 수필로 엮은 자서전』, 김동리기념사업회·도서출판 계간문예, 2013, 110-111쪽에도 실려있다.

18 다만 맨 끝에 김동리가 “해방 후, 정주를 만나 임 양의 소식을 물었더니, 그녀는 고향에 여성동맹 위원장인가 하다가 그 오빠(임택○), 애인 이상○들과 함께 이북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여 놓은 해방 후의 행적에 관한 기억은 사실과 맞지 않다. 오빠 임택재는 이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1939년 2월 16일에 죽었다. 일제 경찰에 당한 고문과 감옥살이의 휴유증이었을 것이다. 또 임순득이 북으로 갈 때 함께한 사람은 애인 이상○이 아니라 남편인 장하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19 서정주, 「홍양」, 『미당 서정주 전집 3: 시』, 은행나무, 2015, 266-267쪽. 이 시는 서정주 제10 시집 『안 잊히는 일들』(현대문학사, 1983)에 실은 것이다.

답장은 영 없고만 말아

그 번열기(煩熱氣)도 식히려 가는 길이었다.²⁰

1930년대의 이쁜 여자 대학생에게 구애하자면
첫째 얼굴이 흰 미남자라야 하고,
깨끗한 옷에 향냄새도 좀 풍겨야 하고,
기분 좋은 붙임성도 있어야만 했는데,
나는 그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한 구면봉발(垢面蓬髮)에
양말에선 적당히 고린내도 나는,
오직 가슴의 그리움 하나로만 덤비던 총각인지라
꼴사납게 녹아웃을 당하고 애가 타서 있던 중,²¹

임순득 주변의 잘난 남자들에 비하면 서정주 자신은 외모든 내면이든 잘나지 못한, 덜 세련된 남자였다는 것이다. 이 ‘잘남’에 이 시기 서정주가 심취해 있던 보들레르에 대한 이해가 놓인다.

3.2 보들레르처럼 쉽고 괴로운 서울 여자

서정주와 임순득의 관계에서 보들레르가 등장한다. 임순득이 서정주에게 보들레르 관련 책을 빌려달라고 하자 서정주는 없는 돈에 무엇인가를 전당포에 맡기고 빌린 돈으로 『악의 꽃』을 사다 주었다는 것이다.

“보들레르를 좀 읽었으면 하는데 있거든 좀 빌려주세요.”

나는 그날로 곧, 무엇이던가 입질(入質)하여서 보들레르의 1환 각수 짜리 『악화집』(악의 꽃) 한 권을 그에게 사다 주었다. 그 표지 안 페이지

20 서정주, 「해인사에서」, 『미당 서정주 전집 4: 시』, 은행나무, 2015, 185-189쪽. 이 시는 서정주 제12시집 『팔 할이 바람』(혜원출판사, 1988)에 실은 것이다.

21 서정주, 「구식의 결혼」, 위의 책, 199-203쪽. 이 시는 서정주 제12시집 『팔 할이 바람』(혜원출판사, 1988)에 실은 것이다.

에 나는 확실히 다음과 같이 적었던 것 같다.

선의 가면이 존재하는 날, 악의 가면의 필요가 생긴다.

악의 가면을 즐겨 쓴 사람-보들레르, 그러기에 그는 톨스토이와 같은
일생을 보내지는 않았다.²²

서정주 초기시와 보들레르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많고 논의도 다양하다. 특히 『화사집』에 관해서는 원죄 의식과 수난, 부활의 상징이라든지 육체의 상징 등등으로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여기서는 서정주 시의 출발점에서 있었던 스무 살 끓는 피의 짝사랑과 실패라고 하는 일상의 삶, 원초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정주 인생에 임순득이 미친 영향은 서정주 시에서 보들레르가 미친 영향과 동격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서정주는 임순득에 대한 짝사랑을 회고하면서 “그 여자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시도 많이 쓸 수 있었어.”²⁴라고 했다. 김동리와 서정주가 고회를 맞은 1984년에 가진 대담에서 한 말이다. 이 시기 서정주가 쓴 시란 대부분 『화사집』에 실려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 이미지는 현실에서 서정주가 임순득에 대해 느낀 감정, 감각이 겹쳐 있다.

가령 「화사(花蛇)」²⁵에서 스무 살의 ‘순네’는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 내던 달변의 헛바닥”과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 즉 “고양이같이 고운 입술”을 가졌다. 클레오파트라 같은 달변을 구사하는 스무 살의 순네에는 서정주가 짝사랑하던 시기 스무 살이고 달변이었던 임순득의 이

22 이 구절은 그 이전 서정주가 발표한 수필 「죽방잡초」(2) (『동아일보』 1935.9.3.)에 “선의 가면이 존재하는 날, 악의 가면의 필요가 생긴다. / 악의 가면을 즐겨 쓴 사람 - 보들레르. 그러기에 톨스토이의 예술론 가운데는 보들레르의 시를 비(非)라 한 곳이 있다.”에도 나온다.

23 서정주, 「(숙) 나의 방랑기」, 『인문평론』 1940.4.

24 김동리·서정주, 「(대담) 고회의 문단 두 원로 신춘 정담-문학과 더불어 ‘우정 반 세기’」(상), 『한국일보』 1984.1.5.

25 서정주, 「화사(花蛇)」, 『시인부락』 2, 1936.12.31. (1936년 6월 창작)

미지가 겹쳐 있다. 서정주, 김동리의 회고가 아니라도 임순득이 워낙 아는 것 많고 말 잘하는 여학생이었던 것은 그 이전 이화여고보의 동창이었던 전숙희도 똑같이 회고하고 있다.²⁶

이런 임순득에게 짝사랑을 호소하면서 자기 비하와 연민에 빠져 자신을 ‘문동이’처럼 느꼈던 서정주는 임순득 옆에 잘난 남자가 있고 그 남자를 당할 수 없음을 알고 감정을 포기하고 정리하게 된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수대동 시(水帶洞詩)」이다.

(…)

등잔불 벌써 키어지는데 ……

오랫동안 나는 잘못 살았구나.

샤를르 보들레르처럼 싫고 괴로운 서울 여자를

아조 아조 인제는 잊어버려,

(…)

머잖아 봄은 다시 오리니

금녀 동생을 나는 얻으리.

눈썹이 검은 금녀 동생

얻어선 새로 수대동 살리.²⁷

「수대동 시」는 보통 서정주가 보들레르의 세계에서 동양적 전통의 세계로 방향을 바꾸는 계기를 보여주는 시로 해석되어 왔다. 거기서 나아가 보들레르적인 것, 도시적인 것에서 벗어나 고향과 전통을 발견한다든지 서구적인 기독교의 원죄 의식에서 벗어나 동양 정신을 발견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미 서정주의 친일 행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연구도 있다.²⁸ 이 시에서 “샤를르 보들레르 처

26 “그 당시 나와 가장 친하던 급우 중에 Y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는 열렬한 독서가였으며 능변가여서 나는 거의 반하다시피 그 아이와 붙어 다녔었다.” 전숙희, 「우정과 배신」, 『문학, 그 고뇌와 기쁨-전숙희문학전집 1』, 동서문학사, 1999.

27 서정주, 「수대동 시」, 『시건설』 1938.6.

28 「수대동 시」가 ‘서구 근대를 비판하면서 전근대 동양을 신화화’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시

림 싫고 괴로운 서울 여자”를 잊고 “금녀 동생”과 결혼하겠다는 화자의 말은 서정주가 일본 유학생 출신의 도시적인 여자를 포기하고 아버지가 정해준 수더분한 아내를 맞아들이는 과정과 바로 겹친다. 고린내 나는 발, 뒤꿈치 구멍 난 양말의 시골 마름의 아들 출신 서정주가 사회부 기자, 연극 연출가 등 일류인 남자만 대동하고 서울 시내를 휩쓰는 말 잘하고 아는 것 많은 도시 여자 임순득에게 사랑을 거절 당한 뒤, 고향의 순박한 여성에게 위안을 찾고 자위하는 과정인 것이다. 실제로 서정주는 임순득에 대한 들뜬 짝사랑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정해준 고향 처녀 방옥숙과 결혼했다.²⁹

서정주에게 보들레르와 임순득은 한 짝이었고 시간적 선후를 가리기는 어려우나 임순득을 포기하면서 보들레르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게끔 「수대동 시」는 씌어 있다. 서정주는 한 시기의 열병이고 일종의 포즈로 보들레르를 접했고 보들레르 같은 여자에게 거절 당한 뒤 보들레르처럼 철저하게 근대 비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짝지워주는 시골 여자를 향해 간 것이다. 이 「수대동 시」에 이어서 서정주는 「엽서-동리에게」를 썼는데 김동리는 이 시를 보고서 서정주가 임순득에 대한 감정을 정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머리를 상고로 깎고 나니
어느 시인과도 낮이 다르다
팡팡한 이빨로 웃어보니 하늘이 좋다
손톱이 구갑(舊甲)처럼 두터워 가는 것이 기쁘고나
소쩍새 같은 계집의 이야기는, 벗아
인제 죽거든 저승에서나 하자
모가지가 가느다란 이태백(李太白)이처럼
우리는 어째서 양반이어야 했느냐.
포올 베를레에느의 달밤이라도

작할 때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첫 시라는 점은 김재용의 「서정주-전도된 오리엔탈리즘」(김재용, 『협력과 저항: 일제 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 2004)에서 지적되었다. 김재용은 이러한 전환이 당시의 대동아 공영론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임을 밝혔다.

29 실제 서정주는 1938년 3월 방옥숙과 결혼했다.

복동이와 같이 나는 새끼를 꼬마
파축의 울음소리가 그래도 들리거든
부끄러운 귀를 꺾어버리마.³⁰

머리를 상고로 꺾는다는 것은 복장을 단정하게 갖춘다는 것이니,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일상에서 벗어난 시인의 생활에서 직업을 가진 생활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시인의 얼굴이 아니게 된다. 나머지 구절도 유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인의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달밤이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생활을 위해 일을 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소쩍새 같은 계집의 이야기’는 시인의 세계이고 그 여자의 이야기를 그만두는 것은 생활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결심을 보이는 것이 “포을 베를레에느의 달밤이라도 복동이와 같이 나는 새끼를 꼬마”라는 구절이다. 바로 이 구절을 임순득이 자기 소설에 인용했다.

또한 이 시기 서정주의 짝사랑 대상과 관련하여 『화사집』의 마지막 시 「부활」에서 시적 화자가 부르는 여자의 이름이 ‘유나’인지 ‘순아/수나’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내 너를 찾아왔다 순아. 너 참 내 앞에 많이 있구나
내가 혼자서 종로를 걸어가면 사방에서 네가 웃고 오는구나.
순아 이것이 몇만 시간만이나!
새벽닭이 울 때마다 보고 싶었다. 내 부르는 소리 귓가에 들리더냐
(...)
종로 네거리에 뿌우여니 흩어져서
무어라고 조잘대며 햇볕에 오는 애들, 그중에도 열아홉 살쯤 스무 살
쯤 되는 애들,-그들의 눈망을 속에 핏대에 가슴속에 들어앉아
순아! 순아! 순아! 너 인제 모두 다 내 앞에 오는구나.³¹

30 서정주, 「엽서-동리에게」, 『비판』 1938.8.

31 서정주, 「부활」, 『조선일보』, 1939.7.19.

시 「부활」에서 화자가 부르는 여성의 이름이 처음 발표될 때는 ‘순아’(『조선일보』, 1939.7.19.)였는데 첫 시집인 『화사집』(1941)에 수록될 때 ‘유나(與娜)’로 바뀌었다. 해방 후 서정주 자신의 자작시 해설에서 도로 ‘순아’로 되었는데(『상아탑』 1946.5.) 김동리가 서정주의 제2시집 『귀축도』(선문사, 1948)의 발문을 쓰면서 한자로 ‘수나(叟娜)’라고 썼고 서정주 자신이 편집한 시선집에서도 ‘순아’를 유지했다(『서정주 시선』, 정음사, 1956). 그런데 최초의 『서정주문학전집』(일지사, 1972)에서는 ‘유나’가 되었으니 이는 아마도 『화사집』의 표기를 따른 것일 것이다. 이후 이를 두고 순아/유나/수나 어느 쪽인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일찍이 김윤식은 서정주의 임순득에 대한 짝사랑의 상처로부터 ‘임유라’가 ‘유나’로 되었고 그 상처의 시적 승화가 「부활」이라고 해석했다.

‘절망한 기독’의 시선에 들어온 한갓된 여학생 임○득은 여지없이 임유나였다. ‘유나’란 무엇이겠는가. 아베 마리아이자 구원의 상징이 아닐 수 없었다. ‘절망한 기독’의 눈에 비친 이 유나가 구원의 아베 마리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화사집』(1941) 24편 중 최후작 「부활」이 그 증거이다. 임유나가 여기서는 유나(與娜)로 바뀌어 있을 뿐 그 밑그림은 임○득이었다.

임○득이라는 한갓 동향의 여학생이 임유나로 변모하고 드디어 유나(與娜)로 승화되는 과정 속에 ‘절망한 기독’이 가로놓여 있지 않았던가. ‘절망하는 기독’ 없이 서정주도 『화사집』도 있을 수 없다.³²

유나는 임유라이고, 임순득과의 결별로부터 서정주가 새로운 시적 세계를 추구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 「부활」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쪽은 ‘순아’가 『화사집』에서 한자로 표기되면서 오식이 생긴 것이고(叟娜→與娜), 그 여성을 굳이 현실의 서정주의 짝사랑의 대상 임유라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사집』을 출간하던 1940년이면 임순득과의 관계가 정리된 지도

32 김윤식, 『김동리와 그의 시대』, 민음사, 1995, 147-148쪽.

4년이나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시와 삶의 ‘부활’을 표현하는 시에 그 상처를 새길 필요가 없으며, 시인과 시적 자아는 별개의 존재라는 것이다.³³

그런데 이 장황한 논란들은 서정주의 젊은 날의 ‘여성’으로서 ‘임순득/임유라’를 놓고 보면 임순득의 ‘순아/수나’, 임유라의 ‘유나’는 모두 임순득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진지하거나 장황하게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부활」을 처음 신문에 발표할 때의 ‘순아’ 혹은 이를 한자로 표현한 ‘수나’는 임순득의 본명 속에 들어 있는 ‘순’자를 담고 있기에 어느 쪽이든 크게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화사집』을 제외하면 서정주는 ‘순아’를 유지한 셈이니, 왜 『화사집』에만 ‘유나’가 등장했는지는 살펴볼 만하다. 『화사집』이 출간되기 전 발표한 「나의 방랑기」에서 서정주는 대상 여성을 ‘임유라(任幽羅)’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곧 이어 『화사집』이 출간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유나’는 임유라에서 가져왔을 공산이 크다. 라(羅)의 발음이 ‘나’ 또는 ‘라’이기에 같은 이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서정주는 「나의 방랑기」에서 처음 임순득에 대한 짝사랑을 이야기할 때 임순득의 오빠는 임사명, 임순득은 임유라라고 썼는데 임택재가 뒤에 시작품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필명으로 ‘사명’으로 쓴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유라’라는 이름도 서정주가 지은 것이 아니라 서정주가 임순득을 만났던 당시 임순득이 자신의 필명 혹은 이명으로 ‘유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사실 ‘유라’는 조선식 이름은 아니고 뭔가 당시로서는 모던한 느낌을 주는 이름이다. ‘순네’, ‘순아’로 지칭했다가 「나의 방랑기」를 쓰면서 짝사랑의 기억이 새삼스럽게 느껴졌고 그 기억의 여운으로 『화사집』에 실을 때 ‘유나’로 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부활」에서 시적 화자가 상대 여성을 ‘순아/수나’로 부르든 ‘유나’로 부르든 시인과 시적 화자의 관계나 임순득과 시 속의 여성과의 관계, 그리고 서정주 시 세계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 해석은 달라질 것이 없다. ‘기실 김동리는 ‘임○득, 임택○’라고 복자를 넣기는 했지만 실명을 사용한 반면 서정주는 ‘임유라, 임사명’이라고 실명을 감추었고³⁴ 그 뒤에도 뜬금없는 ‘ㅎ양’으로 임순득의

33 최현식, 『서정주 시의 근대와 반근대』, 소명출판, 2003, 330-334쪽.

34 서정주, 「(속) 나의 방랑기」, 『인문평론』 1940.4.

이름을 감추었다. 드러내면서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호칭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최근의 『미당 서정주 문학 전집』 제1권(은행나무, 2015)에서는 ‘수나’로 정리되었다.

4 임순득의 연민

4.1 달밤이라도 새끼를 꼬아야 하는 시인

서정주가 이렇게 임순득에 대한 짝사랑으로 난리를 피우고 시에 그 흔적을 새기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 인생의 여성으로 회고하는 데 반해 임순득 쪽에서 서정주의 흔적을 남긴 것은 사건이 있던 한참 뒤인 1943년 2월 『춘추(春秋)』에 발표한 소설 「달밤의 대화」에서 서정주의 시를 한 구절 인용한 것뿐이다. 그 시는 앞에서 김동리가 보고서 서정주의 임순득에 대한 짝사랑의 감정이 정리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시 「엽서-동리에게」이고 그 중에서 “‘포을 베를레에느의 달밤이라도/ 복동이와 같이 나는 새끼를 꼬마.’라고 읊은 시인의 감성도 생각”난다고 언급되었다.

임순득의 일본어 소설 「달밤의 대화」는 시골에 살게 된 순희(洵姬)가 모처럼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기차역까지 나갔다가 생활현실을 발견하고 되돌아오는 달밤의 여정을 묘사한 짧은 소설이다. 순희는 서울에서 약제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러 길을 나섰다. 가난한 소년 순동(順童)이를 서울에 취직시켜 야학공부라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가는 길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기실은 가을날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컸다. 소설은 그러한 자신의 관념성을 비판하는 순희의 내면의 독백이 주를 이룬다. 순동이에게 짐을 지워 기차역으로 나가는데 달밤에는 지계를 지고 가는 순동이기도 신비하게 보일 지경이다. 순동이와 함께 달밤을 걸어가면서 순동이의 피리 소리, 순동이가 꺾어다 주는 들국화 향기에 취해서 순희는 순동이와의 낭만적 사랑을 꿈꾼다. 그러나 기차역에 도착해서 밝은 불빛 속에서 생활에 찌들린 사람들을 보면서, 순동이 역시 그렇게 생활의 무게에 허덕이는 시골의 한 청년임을 깨닫는다. 순동이가 새로 삼아 신고 온 짚신이 밤길에 짐을 지고 오느라 다 떨어진 것을 보고 서울에서 운동화를 한 켤레 사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순간 순희는 신발만이 문제가 아니고 옷차림도 문제고, 문제가 끝

이 없음을 깨닫는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밤에 남자는 새끼를 꼬고 여자는 떨어진 옷을 기워야 한다. 그런데 불을 켜는 데 쓸 석유는 비싸서 남자들 주고 여자들은 연기 나는 향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느라 눈병이 날 지경이다.

그들의 생활의 표정을 보면서 순희는 “막연하고 관념적인 공황상태에 있던 자신의 철없음을 쓰디쓰게 느끼며” 반성하고 ‘계몽이라는 참된 언어’를 떠올린다. 이렇게 순희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친구의 말 때문이다. 순희는 시골 마을에 살게 되면서 친구에게 약품, 운동화, 연료 등 시골 사람들의 생활 개선책을 의논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친구는 “눈병을 앓는 사람들은 소금물로 눈을 씻으면 나올 거고, 맨발은 맨발로 좋다. 그런 사람들에게 양말을 신기고 거기에 가죽구두를 신겨 청진이나 오사카로 보낼 작정이냐? 밤에는 어두워도 상관없지 않느냐. 올빼미나 미네르바의 사자라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은가” 라고 야유했다. 의사가 되려다가 귀를 다쳐 청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약사가 되어 있는 친구의 야유에는 지식인의 이중성과 신체제하에서 벌어진 생활개선운동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담겨 있다. 근본적이지 않은 것, 청진이나 오사카에서 노예와 같은 노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생활개선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친구의 야유를 되살려내고 서울 여행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서울 갈 여비를 보태어 순둥이를 공부시키는 데 도와주기로 한다.

임순득은 「달밤의 대화」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생활개선운동’이고 ‘계몽’ 운동일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1930년대 초반 열정적인 청년들이 벌였던 것과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 일상생활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일견 개선 혹은 진보라고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며, 그런 점에서 당시 교육자와 문인 등 여성지도자들이 신체제론에 발맞추어 내세운 ‘생활개선’이라는 것이 가진 반민족성, 반민중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민중들의 팍팍한 삶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하이칼라’ 생활을 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도 담았는데 소설의 결말은 순희가 순둥이와 계층적으로 쉽게 일체가 될 수 없다는 자각으로 현실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달밤의 대화」(『춘추』 1943.2)를 마지막으로 임순득은 해방이 될 때까지 침묵으로 들어갔다.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인 ‘순희’는 임순득이 그 전에 처음으로 발표한 일

본어 소설 「계절의 노래」에 소설 속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다. 「계절의 노래」에는 임순득의 자전적 요소가 많이 들어 있고 그런 점에서 ‘순희’는 임순득의 페르소나로 볼 수 있다.³⁵

「달밤의 대화」에서 서정주의 시가 인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순희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정말 아름다운 달밤의 꽃이야…….”

순동은 깊은 계곡을 향해 내려갔다. 겁이 없는 농부의 아들은 꽃을 한 아름 안고 절벽과 같은 언덕을 기어오르는 것이었다.

순희는 꽃다발을 안고 다시 순동의 뒤를 따라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순희는 향기로운 꽃다발을 향해서는 조그맣고 초라한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달님이 방안까지 비추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순동이 불쑥 말을 꺼냈다.

“달빛이 있으면 밤에 등불이 없어도 좋은데…….”

순희가 가만히 있자 이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등불로 고생하는 벽촌에 사는 소년은 달빛을 향해서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순희는 못 들은 척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포올 베르레에느의 달밤이라도 나는 복동이와 같이 새끼를 꼬마…….” 이런 시를 읊은 시인의 감성도 생각나서 순희는 가슴이 저러왔다.³⁶

소설의 제목에 나오는 ‘달밤’은 서정주의 시 구절 ‘포올 베를렌느의 달밤’과 겹치고 이 달밤은 베를렌느의 유명한 시 「하얀 달(La lune blanche)」을 전제로 하고

35 임순득의 최초의 일본어 단편소설 「계절의 노래」에 대해서는 이상경, 「거울을 건디는 노래, 「계절의 노래」로 읽는 임순득 문학의 원체험」, 『근대서지』 제17집, 2018, 144-169 참고.

36 임순득, 「달밤의 대화」, 『춘추』 1943.2.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 2007, 273-274쪽.

있다. 베를렌드의 시는 달밤의 서정과 낭만을 노래한 것이다. 소설에서 순희는 추석의 보름달이 뜬 밤의 풍경에 취해서 복동이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이 스쳐가는데 전등불 아래서 복동이의 생활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낭만’을 반성한다. “달빛을 향해서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소년 순동이에게서 “생활의 표정을 적나라하게” 보는 순간 순희는 서정주의 시를 떠올린 것이다.

이 소설 이전 어디에서도 임순득은 서정주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을 쓴 바 없다. 그런데 임순득은 왜 이때에 와서 이 작품에 왜 이런 구절을 넣은 것일까?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임순득이 소설을 발표한 시기 서정주의 행적을 볼 필요가 있다. 서정주는 1938년 3월에 결혼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결혼 후에 발표한 시가 「수대동 시」, 「엽서 - 동리에게」, 그리고 「부활」이다. 임순득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고향 처녀 방옥숙과 결혼했고 새로운 삶을 꿈꾸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결혼이란 가장 노릇도 해야 하는 것이라 대서소 일을 잠시 하다가 금세 서울로 가서 노가다판을 떠돌아 다녔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1939년 고창군청 임시 고원 노릇을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데 1940년 1월 큰아들이 태어났다. 8월에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폐간되고 서정주는 일자리를 구하여 9월 만주 양곡주식회사 간도성 연길시 지점 경리사원으로 입사했고 겨울에 용정 출장소로 전근해서 근무했고 1941년 봄 4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정주는 만주에 가 있으면서 그곳에서 회계, 서기 같은 사무원 노릇을 하고 있는 자신의 생활을 「만주일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만주일기」를 통해서 보면 서정주는 만주 체험을 통해서 조선적인 것 혹은 동양적인 것으로 복귀하게 되고 그것은 ‘대동아공영권’으로 이어진다.³⁷

만주에서 돌아와서 첫 시집 『화사집』을 발간(1941)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 4월 동대문 여학교 촉탁교사로 부임하면서 처자식을 서울로 오게 해 살림을 시작했다. 2학기 때 동광학교로 옮겼으나 1942년 봄 학교를 그만두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함락시킨 후(1942.2.15.), 『매일신보』에 「시의 이야기 - 주로 국민시가에 대하여」(1942.7.13.~17)를 발표했다. 이

37 최현식, 앞의 책, 135쪽.

글에서 서정주는 한때 자신이 심취했던 랭보와 보들레르를 비판하면서 동방의 시인을 찬양했다.

우리의 선인들은 누가 대체 랭보와 같이 자기 바지에 구멍이 난 것을 신 줄 위에 얹었으며, 보들레르와 같이 보기 싫은 유리 장수의 등떼기에 화분을 매어붙인 것을 글로 쓴 것이 있었던가. 그들은 그런 것을 벌써 사춘기의 어둠 속에 묻어버리고 절대로 백일 아래에 드러내는 일은 없었다.³⁸

이러한 선회는 「수대동 시」에서 고향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일제말 국책인 국민시가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임순득은 이런 서정주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임순득의 소설 「달밤의 대화」는 이 무렵에 씌어졌다. 임순득은 과거 보들레르니 뭐니 하면서 퇴폐적이고 전면적인 자기 부정의 감각으로 사랑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던 시인이 전통이나 풍속을 긍정하면서 부모가 시키는 결혼을 하고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 허덕이며 만주까지 갔다오는 모습을 보면서 서정주의 시 「엽서-동리에게」의 한 구절을 떠올린 것이다. 좀 더 젊었던 날 마주쳤지만 자신의 생활 감정과 맞지 않고, 그래서 남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지 않았던 서정주가 ‘생활’의 무게 때문에 만주에 취직을 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³⁹, 임순득은 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했던 것에 대한 반성, 일말의 미안함을 느낀 것은 아니었을까? 소설에서 달밤에 복동이가 위협을 무릅쓰고 계곡에 내려가 꺾어다 준 꽃다발은 과거 서정주가 없는 돈에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고 빌린 돈으로 구해다 주었던 보들레르의 책 『악의 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때는 무심히 받아들였던 보들레르의 책이 사실은 가난한 서정주가 곤란을 무릅쓰고 구해다 준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기도 하다. 소설에서 순동이는 순희의 달밤의 감

38 서정주, 「시의 이야기」, 『매일신보』 1942.7.13.

39 생활 현실에 몰려 만주에 일자리를 구해 간 이때의 서정주에 대해 『시인부락』 시절 절친이던 오장환은 「귀족도-정주에게 주는 시」(『춘추』 1941.04.)에서 비판한 바 있다.

상에 맞추어 꽃을 꺾어다주지만 그 자신은 달빛이 등불을 대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가난한 시골 소년이었다.

밝은 전등불 밑에서 보는 순동은 달빛 아래에서 피리를 불고 기러기를 바라보았던 신비한 소년이 아니었다. 바가지를 매단 사람이 아직 그 고통을 조금밖에 맛보지 않았을 때의 표정, 조금 나이가 적을 뿐 막막한 그 표정에는 역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⁴⁰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근면하게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순동이기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런 민중의 삶을 보면서 임순득은 일자리를 찾아 만주로 갔어야 했던 시인 서정주는 시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달밤에도 그 달빛에 의지하여 새끼를 꼬아야 하는 생활인이어야 했음을 떠올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다.

게다가 1942년의 서정주는 그 이전에 자기에게 사랑을 호소하던 시기에 시인으로서 지향하던 바와는 정반대로 현실 긍정의 기조로 동양적인 것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아직 서정주가 노골적인 친일 작품을 쓰지는 않았지만 서정주 시 세계의 변화와 그가 쓰는 산문에서 그러한 기색을 읽었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임순득이 표하는 감정은 자책과 연민이다. 소설에서 순희는 순동이의 생활의 표정을 읽었고 그를 위해 조그만 행동을 하지만 서로 생활 처지가 다른 관계로 일체감을 느끼는 관계로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한다. 소설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다.

“순희는 자신의 오버를 벗어 순동에게 걸쳐주려 했지만 지게가 방해가 되었다. 아, 지게가 방해가 되었다…….”⁴¹

40 이상경, 앞의 책, 275쪽.

41 위의 책, 279쪽.

1943년 11월 전후로 최재서가 경영하던 인문사에 입사하여 『국민문학』과 그 자매지인 『국민시인』 편집을 맡았다.⁴² 이들 잡지는 친일의 논리를 펼치는 글들을 실었고 서정주 자신 친일 작품을 다수 발표한다. 임순득은 이 소설 이후 더 이상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결혼해서 강원도 원산 부근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다.

4.2 임순득의 보들레르

서정주가 짝사랑을 호소하던 시기, 임순득은 서정주와 보들레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책을 구해달라고 한 만큼 보들레르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고 뭐라고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은데 서정주나 김동리의 회고에는 그런 것이 없다. 김동리가 임순득을 찾아가 서정주가 훌륭한 시인이라고 칭찬을 해도, 서정주가 자기 시를 정서해서 보내도 임순득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뒤에 임순득의 남편이 된 ‘장하인’이라는 인물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보들레르’에 비견된 인물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당사자의 발언이나 신문 기사 등의 구체적인 1차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고 제3자의 전언만 남아있지만 그 전언들이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전언을 통해 장하인이란 인물과 임순득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구영은 임순득의 남편 장하인을 ‘예술지상주의자’라고 기억하고 있다.

장하인은 프랑스에 가서 문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 문단에 시를 발표하면서 이름을 날린 시인이었다. (...) 그들 부부는 평양에 정착해서 글을 썼다. 그러나 임순득의 것은 출판이 되었으나, 장하인의 것은 출판이 허락되지를 았았다. 당시 북에서는 생산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글을 써야했고, 예술지상주의적인 것은 낡은 것이라고

42 서정주가 편집한 시 관련 잡지는 『국민시인』이 아니고 『국민시인』이다. 『국민시인』은 1944년 12월과 1945년 1·2월호 두 호가 나왔다. 최현식, 「내선일체 · 총력전 · 『국민시인』, 『서정시학』 2020년 겨울호, 150-171쪽.

하여 전혀 용납되지 않았다. 그런데 장하인의 글에는 예술지상주의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부지런히 시를 발표했지만 자본주의 냄새가 나서 안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그는 시를 못 쓰게 되었다. 쓸 때마다 비판을 받아 그로서도 더 이상 쓸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⁴³

장하인과 임순득의 이런 면모는 북한에서 작가로 활동하다가 탈북한 성혜랑도 유사하게 기억하고 있다. 성혜랑은 그의 어머니 김원주가 노동신문사 기자를 할 때 같은 건물에 임순득이 근무하던 조선여성사가 있어 임순득을 알게 되었으며⁴⁴ 계속 임순득 부부를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임순득은 북조선에서 가장 실력 있는 여류작가로 여성사⁴⁵ 전속작가로 계셨다. 그러나 남편인 장 선생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술도 직장도 거부하고 ‘부엌데기’ 노릇을 맡아 하셨다. 이렇게 좀 ‘별나게’ 처신한 것이 임순득 선생에게는 큰 오점이 되었다.

두드러진 경상도 사투리를 쓰던 장 선생은 균형 잡힌 체격과 용모, 도저히 사회주의 물이 먹지 않는 인품 때문에 손해를 보셨다. 전쟁 기간에도 베레모를 쓰고 홈스핀이나 체크 무늬 양복에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가시는 걸 보았다. 시세에 따르는 ‘당적 언사’를 절대 입에 담지 않고 ‘독야청청’하시던 그 모습에서 ‘반동’의 냄새가 풍겼다고 할 수 있다,

임순득 선생도 발라맞추지⁴⁶ 못하는 고정된 성품이라 끝내 집필도 중단하고 지방 조동⁴⁷이라는 축출 명단에 드셨다.

고건원탄광⁴⁸에 두 분이 가셨는데, 장관을 아른아른하게 닮은 단칸방

43 심지연 글, 『산정(山頂)에 배를 매고-노촌 이구영 선생의 살아온 이야기』, 개마서원, 1998, 202~206쪽.

44 성혜랑, 『등나무 집』, 지식나라, 2000, 205쪽.

45 ‘조선여성사’를 가리킴.

46 발라맞추다 (언행을) 솔직하게 하지 않고, 옷사람의 눈치를 보아가며 행동하다. 아첨하다.

47 조동 조직적 조치나 행정적 조치로 직장을 옮기는 것.

48 고건원탄광(古乾原炭鑛):함경북도 경원군(현재는 새별군) 고건원 노동자구에 있는 광산기

에서 임순득 선생은 사과 껍질을 얹어놓고 여전히 글을 쓰시며 권양기⁴⁹
운전공⁵⁰으로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거의 20년 전이다. 장 선생은
나무 해다 밥 지어 주시고(...)⁵¹

고은은 『만인보』에서 장하인에 대해 시를 두 편이나 썼다. 그의 시는 세부가 매우
자세한데 이구영이나 성혜랑의 회고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⁵² 거기서 고은은 장하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1941년

불란서 유학에서

장하인이 왔다

멋진 베레모를 쓰고 왔다

(...)

샤를르 드 보들레르라는

이름을 혼자 입에 달고 다녔다⁵³

몇해 전 불란서에서

그 안개 낀 빠리에서 돌아왔다

보들레르가 신이었다 거기서 돌아왔다

식민지 문단

느닷없이 나타난 장하인이 꿈에서나 그리던 보들레르였다

업소.

49 권양기: 도르레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

50 운전공 기사.

51 성혜랑,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거부한 남편 때문에 말년에 권양기 운전공이 된 북한 최고의 여류작가 임순득」, 『소식을 전합니다』, 지식나라, 1999.12.24, 156-157쪽.

52 고은이 서정주에게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53 고은, 「장하인」, 『고은 시집 만인보』 24/25/26, 개정판; (주)창비, 2010, 517~519쪽.

(…)

여기에 막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인텔리 처녀

임순득이 그를 만났다

들은 세상으로부터

추대된 듯

선택된 듯

세상 모르고

불란서 시를 말하고

불란서 시를 내세웠다

조르주 쟁드와 뫼세라고

뒤발과 보들레르라고

결혼을 맹세한 밤

임순득이 울고

장하인이 그 울음을 부여안았다⁵⁴

랭보, 베를렌느, 보들레르를 좀 들여다보다가 ‘전통’의 세계로 뒷걸음질친 서정주에 비해서 장하인은 정통으로 보들레르를 공부한 인물이었고 그 삶의 방식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시인이었던 것 같다. 임순득이 언제 장하인과 결혼했는지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자전적 요소가 많이 들어 있고 장하인을 모델로 한듯한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 「계절의 노래」가 1942년 6월에 발표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두 사람이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달밤의 대화」도 임순득이 결혼한 후에 발표된 것이다. 다만 임순득이 장하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보들레르적인 세계를 자기의 것으로 수용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방 후에 발표한 소설 「우정」에서 임순득은 여성 주인공의 입을 빌어 ‘인텔리’가 일제 말기에 취했던 현실 부정의 태도, 우울의 정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해방 후에까지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54 고은, 「장하인」, 『고은 시집 만인보』 29/30, 초판; (㉠)창비, 2010, 38~42쪽.

한 가지 남은 문제로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임순득과 화가 이상춘의 관계이다. 서정주와 김동리의 회고에서 서정주는 임순득의 동거인이 ‘박성춘’이라 했고, 김동리는 ‘이상○’이라고 했다. 김동리가 인물 이름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인물이 혹시 프로미술가 이상춘(1910~1937)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상춘은 일찍이 대구에서 ‘0과 전람회’를 주도한 뒤 일본에 가서 무대미술을 공부한 바 있고 돌아와서 이복명이 1932년 5월 『조선일보』에 연재한 소설 「질소비료공장」의 삽화, 1933년 11월 극단 신건설이 상연한 『서부전선 이상없다』의 무대 미술 등 전위적인 미술로 충격을 주었다.⁵⁵ 이상춘은 ‘O科會’ 기간(1927-1929)에는 니힐리즘, 아나키즘,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된 가운데 다다, 미래주의, 초현실주의 계열의 작품 활동을 했고, 카프 활동 시기(1930-1935)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이념에 따라 (리얼리즘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구성주의를 실천한 아방가르드 예술가의 면모를 충분히 보였고 평가된다.⁵⁶

서정주가 임순득을 찾아다니던 시기, 이상춘은 신건설사 사건(제2차 카프검거사건)으로 1934년 6월부터 1935년 12월까지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였다. 서정주가 임순득에 대해 ‘연극지도자’와 여행을 가더라고 회고하고, 김동리가 임순득을 ‘연극 배우’로 기억하고 있는 것, 임순득의 방이 ‘무대 장치’처럼 꾸며져 있더라고 회고한 것 등으로 임순득이 연극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36년 전후해서 임순득은 ‘조선미술공예사회’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조선미술공예사’란 1935년 경 김복진이 설립을 도모했으나 경비문제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조선미술공예사’와 동일한 곳일 수 있다. 이렇게 문학, 미술, 연극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진 임순득이 당대 최고의 아방가르드 예술가였던 이상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런 이상춘이라면 보들레르의 세계를 잠깐 들춰본 서정주가 보기에 ‘어디서나 잘나야만 하는 남자’였을 것이다.

55 이민영, 「프로파간다 무대의 미학적 기원: 이상춘과 구성주의」, 『민족문학사연구』 제68, 2018.12.

56 김기수, 「아방가르드 예술가 이상춘(李相春 1910-1937)의 미술사적 의의」, 『현대미술사연구』 제50호, 2021.

5 맺음말

일제 말 임순득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소설 「달밤의 대화(月夜의語り)」에 서정주의 시 「엽서-동리에게」에 나오는 “포올 베를레에느의 달밤이라도/ 복동이와 같이 나는 새끼를 꼬마”라고 하는 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단서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같은 전북 고창 출신 소설가인 임순득과 시인인 서정주의 인간적, 문학적 관계를 밝혔다.

서정주는 1936년 초 최첨단 모던 여성이었던 임순득에게 사랑을 호소했으나 임순득에게 거절당하고 수더분한 고향 여인과 결혼한다. 임순득에게 서정주는 어설픈 모더니스트처럼 보였고 또 임순득이 지고 있는 시대적 고민을 나눌 만한 상대도 아니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임순득은 서정주에게 보들레르처럼 쉽고 괴로운 여자였고 서정주의 초기 시에서 시적 화자를 달뜨게 하는 다소 마성을 가진 여성상으로 표상되었다. 임순득에게 서정주는 베를렌느의 달밤에도 생활을 위해 새끼를 꼬아야 하는 가난한 시인이었고 임순득의 소설 「달밤의 대화」에서 시적 감수성조차 현실 생활의 무게에 짓눌리는 소년의 모습에 겹쳐진다.

서정주가 임순득에게 사랑을 거절당하고 아버지가 정해준 고향의 수더분한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은 서정주의 초기 시 세계가 서양적인 보들레르를 떠나 동양적인 전통 세계를 발견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통해 악마주의, 생명과 등으로 신비화되었던 서정주 초기 시의 ‘수수께끼’를 오히려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시가 명료해지는 것이 좋은가 하는 판단과는 별개로 근거 없는 신비화를 벗어난다는 뜻이다. 가령 서정주 시 「부활」에서 시적 화자가 부르는 여성의 이름이 순아/유나/수나 어느 쪽이든 임순득을 호명하는 것이기에 그 차이에 그리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음도 알 수 있었다. 결혼 후 서정주는 일 자리를 찾아 만주국에 갔다온 뒤 1942년 친일문학에의 길로 들어선다. 임순득은 거기서 생활인으로서의 서정주를 보았고 소설 「달밤의 대화」에서 서정주의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그 ‘생활의 표정’을 미처 읽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반성하면서 서정주의 상황에 연민을 표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개인사로서도 흥미롭지만 그 상호텍스트성으로 해서 두 사람의 작품 해석을 풍부하게 해주며, 보들레르에서 잠시 만났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동양’으로의 귀환을 거쳐 친일 시인으로, 또 한 사람은 식민지 여성 지식인으로서는 사명감을 견지하면서 시국색을 띄지 않는 서정적 작품을 쓰는 소설가로 서로 멀어지는 일제 말기 문학사의 흥미로운 한 장면을 빚어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서정주, 『화사집』, 남만서고, 1941.
_____, 『귀촉도』, 선문사, 1948.
_____, 『서정주시선』, 정음사, 1956.
_____, 『서정주문학전집』 제1-5권, 일지사, 1972.
_____, 『미당 서정주 전집』 제1-11권, 은행나무, 2015-2017.
고은, 『고은 시집 만인보』 24/25/26, 개정판; (주)창비, 2010, 517~519쪽.
_____, 『고은 시집 만인보』 29/30, 초판; (주)창비, 2010, 38~42쪽.
김동리 기념사업회, 『탄생 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30: 수필 운명과 사권다』, 도서출판 계간문예, 2013.12
김동리 기념사업회, 『탄생 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26: 수필로 엮은 자서전』, 도서출판 계간문예, 2013, 110-111쪽.
김동리·서정주, 「(대담) 고희의 문단 두 원로 신춘 정담-문학과 더불어 ‘우정 반세기」(상), 『한국일보』 1984. 01.05.
성혜량, 『등나무 집』, 지식나라, 2000, 205쪽.
_____, 『소식을 전합니다』, 지식나라, 1999, 156-157쪽.
심지연, 『산정(山頂)에 배를 매고-노촌 이구영 선생의 살아온 이야기』, 개마서원, 1998, 202~206쪽.
전숙희, 『문학, 그 고뇌와 기쁨-전숙희 문학전집 1』, 동서문학사, 1999.

단행본

- 김재용, 『협력과 저항: 일제 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 2004, 117-145쪽.
김윤식, 『김동리와 그의 시대』, 민음사, 1995, 147-148쪽.

이경철, 『미당 서정주 평전: 더 없이 아름다운 꽃이 질 때는』, 은행나무, 2015, 91-114쪽.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 2007.

전봉관, 『경성자살클럽』, 살림, 2008, 146~171쪽.

최현식, 『서정주 시의 근대와 반근대』, 소명출판, 2003, 312-336쪽.

논문

김기수, 「아방가르드 예술가 이상춘(李相春 1910-1937)의 미술사적 의의」, 『현대미술사연구』 제50호, 2021, 7-44쪽.

서승희, 「식민지 여성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 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72집, 2016.4, 261-287쪽.

서정자, 「최초의 여성문학평론가 임순득론-특히 그의 페미니즘 문학 비평을 중심으로」, 『청파문학』 제16집, 1996.

윤재웅, 「서정주 『화사집』에 나타난 체험과 창작의 상관관계-중앙불전 재학 및 해인사 체류 시절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95호, 2021.6, 267-294쪽.

이민영, 「프로파간다 무대의 미학적 기원: 이상춘과 구성주의」, 『민족문학사연구』 제68호, 2018.12, 269-293쪽.

이상경, 「겨울을 견디는 노래, 「계절의 노래」로 읽는 임순득 문학의 원체험」, 『근대서지』 제17집, 2018, 144-169쪽.

최현식, 「내선일체·총력전·『국민시인』」, 『서정시학』 2020년 겨울호, 150-171쪽.

Abstract

A Study on Im Soon-deuk's Relationship with Seo Jeong-ju

: Focusing on Im Soon-deuk's novel "Moonlight Talk" and Seo Jung-ju's poem "A Postcard to Dong-ri"

The last novel released by Im Soon-deuk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Moonlight Talk" quotes a verse from Seo Jeong-ju. With this as a clue, this study revealed the human and literary relationship between Im Soon-deuk, a novelist and Seo Jeong-ju, a poet. In early 1936, Seo Jeong-ju appealed for love Im Soon-deuk, a cutting-edge modern woman, but was rejected by Im and Seo married to a shabby country woman. This process parallels Seo's departure from the Western world of Baudelaire in his early poetry to discover the Eastern world of tradition. To Im Soon-deuk, Seo Jung-ju looked like a clumsy modernist and was not a match to share the agony of the times. Later, Seo Jeong-ju went to Manchuria to make money and entered pro-Japanese literature around 1942. Im Soon-deuk saw Seo Jeong-ju's life hardship and expressed her compassion for the "weight of poverty" by quoting Seo Jeong-ju's poem in her novel "Moonlight Talk".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reated an interesting scen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that it was an interesting relationship between pro-Japanese writer and writer who resisted with indirect writing.

Key words: Im Soon-deuk, Seo Jeong-ju, Baudelaire, "Moonlight Talk", "A Postcard to Dong-ri"

논문제출 / 2023. 11. 15.

논문접수 / 2023. 11. 23.

게재확정 / 2023. 12. 07.